

ABROAD TREND

해외동향

중국, 사면지역 발전기 수입 폭증

작년하반기부터 시작된 한발의 영향으로 전기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중국사면지역의 자가발전기 수입이 폭증세를 누리고 있다.

사면세관에 의하면 금년2개월동안 2500대의 자가발전기가 수입되어 전년동기 대비 22배의 폭증세를 보인것으로 발표되었다.

가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작년 하반기의 발전기 수입량은 980대,640만달러 2003년간 수입량, 수입액의 67.8%, 83.3%를 차지하여 발전기 수입이 감물의 정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복건성내 많은 저수지들이 수력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수위가 낮아져 사면시 전력국은 3월2일 부터 관내 생산공장들에 대하여 주2일 전기공급을 제한할 것임을 발표한다 있다.

극심한 한발사태는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없어,복건성내 향촌의 기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농업용수, 식수확보를 위한 비상용 자가발전기 구입에 여념이 없고 사면세관에서도 수입발전기의 상품검사와 신속한 통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발전부분 外資 허용

만성적 전력부족 형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발전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을 타개적으로 내놓았다.

지난달 베트남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업부(MO)는 최근 폐회된 제16회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발전분에 대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발전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독점해 온 전기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제품과 서비스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EVN은 올 한해 동안 모두 465억KWh의 전기를 공급해 각종 생산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국내금융기관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등 국제금융기관과도 협상을 진행중이다.

EVN은 작년에도 모두 7개의 신규발전을 건설, 전력공급능력을 410만KWh로 확대하였다.

파나마, 전력기자재 호조

파나마 전력산업 분야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어 있다. 배전분야의 39%, 발전분야의 41%에 대해 파나마정부가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기자재 수요는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의 기반시설 투자와 기타 상업용, 주택용 전력기자재 그리고 파나마운하관리청의 전력기자재 시설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파나마 정부는 98년 파나마전력공사인 IRHE을 4개 전력생산회사, 1개 송전회사 및 3개의 전력공급회사로 분리해 이 중 7개사를 매각했다. IRHE 이전에는 미국 회사인 Fuerza y Luz라는 회사가 1917~1977년까지 파나마의 전력분야를 모두 담당했다. 아직까지 민영화되지 않은 부문은 송전회사이며 파나마 정부는 이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국영기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파나마의 발전업체는 Empresa de Generacion Electrica Fortuna, S.A., Empresa de Generacion Electrica Chiriqui, S.A., Central Canjilones (ESTI), Empresa de Generacion Electrica Bayano, S.A., Empresa de Generacion Electrica Bahia Las Minas, S.A., Corporacion Panamena de Energia (COPESA), Petroleologica de Panama, IGC/ERI Pan Am Thermal Generating Limited, Hidro Panama, S.A., Pedregal Power Company 등 10개사이다.

나머지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주로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으며 이들 민영화된 전력생산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전력기자재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다. 발전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기업에게 매각되었다. 현재 민영화된 전력회사들은 전력기자재 수요를 입찰에 의해 구매하고 있으며 대규모 발전소 건설 등과 같은 프로젝트는 턴키베이스로 발주하고 있다. 특히 배전회사인 Union Fenosa는 스페인이 현지 투자한 업체로 주로 스페인에서 직접 전력기자재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나마 내의 발전회사는 현재 8개 업체이나 매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규 참여자들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2001년 기준 전력기자재 시장 점유율은 미국 제품이 49%, 스웨덴 제품이 34%로 압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파나마의 전력 요금은 1kWh당 가정용 12센트, 산업용이 그보다 낮은 10~11센트 수준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전 전력 분야가 국가독점이었을 때에는 서비스는 지금보다 나쁜 대신 요금은 저렴했는데 민영화된 후에는 서비스는 좋아졌으나 요금은 그만큼 올라갔다는 평가이다. 이에 따라 각 산업체 등에서는 기존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신 독립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해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해 이에 따라 1MW 이상의 대형 발전기 수요도 앞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자재 수입에는 규제가 없으며 안전규격이나 표준규격도 없으므로 수입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독일 E.ON社, 스웨덴 Granninge社 경영권 인수

독일 국영전력업체인 E.ON社は 프랑스전력공사(EDF)로부터 스웨덴 4대 전력사중 하나인 Granninge社 주식 36.3%를 취득했다. 주식취득은 지난 2001년 5월에 E.ON에 편입된 스웨덴 Sydkraft社를 통해 이뤄졌고 스웨덴의 독점금지법에 따른 승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고 발표했다.

E.ON社は 이미 Granninge社 주식지분 36.3%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주식의 가치는 약 5억3,000만 유로로 평가되며 Granninge社 지분 확보율이 72.6%에 달해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으며 Granninge社は 주로 수력발전을 이용, 핀란드와 스웨덴의 23만8,000여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전력난 예상

지난해 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던 중국 최대경제도시 상하이(上海)가 올 여름에도 전력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 전력공사에 따르면 올 여름 상하이시 최고전력소모량은 1천679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08만kW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 여름에도 404만kW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공사는 전력난에 대비해 올해 200억위안(약 3조원) 정도를 투입해 각종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급받기 시작한 썬샤뎀 전력과 신규 건설된 송변전소를 추가동할 계획이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여름 폭염속에 전력사용량이 급증, 심야 가로등을 소등하고 일부 지역에 대한 제한적인 전력공급을 단행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손상된바 있다.

상하이시는 지난해말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등 올해 전력난에 대비해왔다.

필리핀, 경쟁력 없는 발전소 퇴출

필리핀 국영전력자산채무관리공단(PSALM)이 경쟁력 없는 국영발전소들을 매각기로 결정했다. PSALM은 비대해진 발전부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경쟁력을 잃은 국영 전력공사 소유 발전소 15개를 매각할 계획이며, 또 남부지역의 350kW급 수력발전시설 매각을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총 140만kW 규모의 발전시설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각대상으로 선정된 발전소들은 발전용량이 적거나 설비가 노후화돼 경쟁력을 상실한 곳들이며 그동안 정부보조에 의해 운영돼왔다.

PSALM에 따르면 발전소 매입자는 이 시설을 재운영할 의무가 없으며 설비를 해체한 후 매각할 수도 있다.

일본 간사이 전력, 포인트 제도 도입

일본에서 처음으로 간사이 전력이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간사이 전력은 미츠이스미토모카드와 제휴, 전기 이용량에 따라 누적된 포인트를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해피e포인트프로그램(가칭)' 을 올 가을부터 실시한다.

포인트 제도는 일본 통신회사인 간덴사가 운영하던 전화요금할인제도 '해피e플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해피e플랜' 가입자 중 포인트 제도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전용신용카드나 제휴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호텔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간사이 전력은 카드 사용에 따른 연회비는 무료며 쌓인 포인트에 따라 호텔숙박권이나 콘서트 티켓등과도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비스 운영은 간덴사의 자회사인 클리어파스가 시행한다.